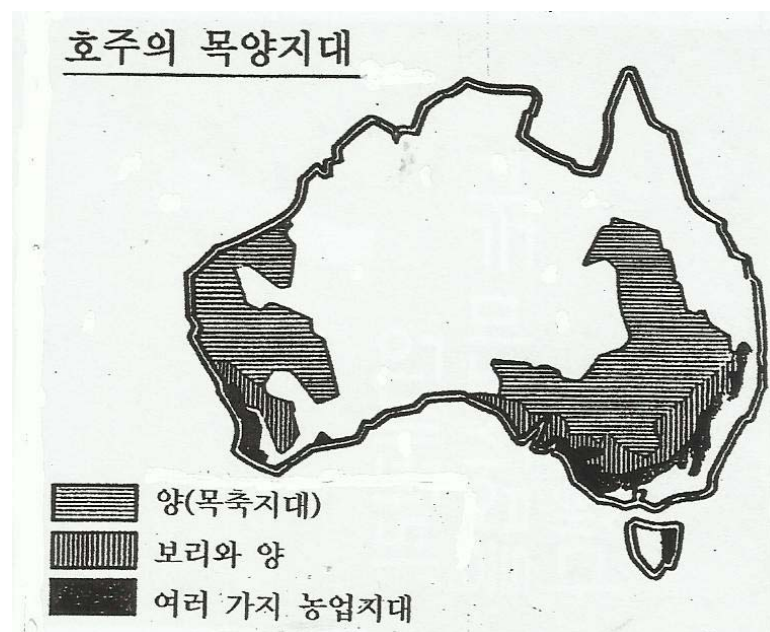


호주의 목양산업(2)

아래 그림은 호주의 목양 분포다. 검정으로 된 부분은 연간 강우량이 750 mm 정도 되는, 호주로서는 상당히 혜택 받은 지역으로 비가 적당히 많이 오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목양뿐만 아니라 소나 돼지, 닭 등의 사육에도 적당하며, 집약적인 농업이 가능한 지역이다.

세로로 빗금을 친 부분은 연간 500 mm 이하의 강우량을 보이는 목양이나 밀농사가 가능한 곳이다. 그 내륙지방인 가로로 빗금을 친 지방은 연간 강우량이 250 mm ~ 375 mm의 건조지대로 이 지역에서는 목양 외에는 사육이 안된다.



<호주의 목양지대>

호주의 목양산업은 건조지대나 비바람에 강한 양종으로서 메리노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고, 그것도 각 지역의 특성에 걸맞은 여러 가지 타입의 메리노 양을 개발하였다.

가령 습기가 많은 토지에서는 사육하기 힘든 메리노종이지만, 반대로 영국 종은 건조지대

에서는 사육하기가 어렵다. 이 두 가지 양종중의 중간급이라고 할 만한 컴백(comeback)종이나 교배종은 습기와 건조에 견딜만한 힘도 중간 정도여서 이것이 양종 분포의 기초가 되고 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주의 동남부와 서남부의 해안에 가까운 지역은 비가 많고,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건조하기 때문에 해안 근처에 컴백종과 교배종을 사육하고, 기타 지역은 메리노 양을 사육한다.

2011년 현재 호주에서 사육되는 양의 마리 수는 약 7천 3백만 마리인데, 이중에서 약 75% 정도가 메리노종이다. 메리노종이라 하여도 호주의 메리노는 독특한 메리노종으로 다른 나라의 메리노종과 판이하게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들여왔던 메리노 양종을 적절히 교배시키고, 개량하여 각 지방에 적당한 메리노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현재 호주의 메리노는 크게 네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양모의 굵기에 따라 엑스트라 파인(Extra-fine), 파인(fine), 미디엄(medium), 스트롱(strong) 메리노의 네 가지가 그것이다. 이 양모의 굵기는 메리노 양의 체질에도 관계가 되는데, 엑스트라 파인이나 파인 메리노 양은 먼 거리까지 가서 풀을 뜯어 먹을 힘이 약하여 상질의 목초지가 아니면 사육하기가 어렵다. 이에 반하여 스트롱 메리노 양은 건조하기 쉬운 토지에서는 풀의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 풀을 뜯어 먹기 위하여 매일 같이 먼 거리의 초지를 찾아 돌아다닐 만한 힘을 갖고 있다.

메리노 목양업자는 양의 생산성을 감안하여 우선 양의 건강이 유지될 것, 다음이 한 마리당 양모의 거래가격이 많아질 것을 계산에 넣고 양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한발(旱魃 : 오래도록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바싹 마르는 상태)의 피해가 가장 적은 강력한 메리노를 많이 수용하고, 또한 미개한 오지 개발에 이 메리노종을 이어서 이식하였다.

따라서 세모용 메리노는 한정된 지방에만 존재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 특히 1990년에 호주의 총 사육 양의 마리수가 1억 7천만 마리였던 것이 2011년 기준으로 7천 3백만 마리로 반 이하로 격감하면서 가급적 메리노 양만을 남기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다.

메리노와 영국 종을 교배하여 만들어진 교배종 중에서 다시 메리노종 성격으로 되돌아온 종을 컴백(comeback)종이라 하는데, 이 메리노종은 교배종 중에서는 가장 양모가 가늘고, 메리노와 비슷한데 왜 컴백이란 종류를 만들었는가 하면 고기 맛 때문이다.

메리노종은 양모는 가장 좋지만, 고기 맛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메리노 양과 같은 양모를 생산하면서 영국 종 양종과 같은 육질이 좋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양종이 메리노 컴백종이다.♣ (공석봉)